

시설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Pre-parent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강 사 배 은 숙**
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 전공
조 교수 강 기 정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lecturer : Bae, Eun-Sook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

Assistant Professor : Kang, Ki Jung

〈목 차〉

I. 서론	IV. 연구방법
II. 이론적 배경	V. 연구결과
III.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내용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e-parent education program and its application to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ill be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 change in self-esteem of the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and a change in defining an ideal family. With thes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of the requirements for its content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searched, and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participated in the program in 12 sessions of 4 stages.

The research showed a meaningful change of $p < .001$ for self-esteem and the ideal

* 이 논문은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을 요약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 배은숙 (bes0627@hanmail.net)

family in pre, post-test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That 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e-parent education program. Observing the experimental group's change process, the researcher proved the following results. At the beginning of the program experimental group showed hopelessness and disliked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t the end of this, they had active attitudes, confidence and challenge to the vision. This study contains theory and various practical family activities. This study made a contribution to help adolescents in residential care enhance self-esteem and define the future ideal family.

Key Words : 시설청소년(Adolescents in the residential Care),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pre-parent education program), 자아존중감(self-esteem), 이상적 가족상(the ideal family)

I. 서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갈수록 가족형태나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됨에 대한 낮은 인식과 가치관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 시대는 사회적으로 미혼모의 증가, 청소년 성문제, 성폭행, 낙태 등 심각한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족해체 현상과 맞물려 아동학대, 유기 등의 사회문제가 많아질수록 부모에게 버림받고 학대받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결국 부모의 역할 부재로 양육시설에 맡겨지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전체 시설입소아동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승권, 2003). 2006년 245개의 아동양육시설에 맡겨진 요보호발생아동은 전체 5,138명으로, 발생유형을 보면 기아 122명, 미혼모 1,244명, 비행·가출·부랑 446명, 빈곤·실직·학대 등 기타가 3,297명으로 나타났다. 1990년(5,721명)에는

미혼모아(2,369명)와 기아(1,844명)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 2006년에는 미아(29명)와 기아(122명)는 크게 감소하였고 미혼모아가 1,244명, 빈곤, 실직, 학대, 기타 등이 4,265명으로 가장 큰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미혼모, 빈곤, 실직, 학대 등 사회적 사고에 의해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시설에 입소되는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복지서비스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원만한 부모역할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 부모역할 정립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정들은 자아개념, 현실감, 환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만성적인 우울과 대인 관계에서의 무능력, 부모역할 정립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를 참고할 때, 시설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인 가족상은 장차 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장애요인이 되는바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인 가족상 및 부모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

1)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아동양육시설 수 및 보호아동현황 - 시도별 (1980-2004)" ;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통계자료/188번 게시물 "요보호아동보호현황(2006년 상반기)", 185번 게시물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2006년 상반기).

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 시설에 입소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학, 신학, 여성학, 아동복지학, 청소년복지학, 가정관리학 등의 학계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일련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주로 이들의 연구는 입소된 시설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인 특징(유안진 외, 2003; 김기영 외, 2004; 정선욱, 2002; 김춘경 외, 2004; 현은민 외, 2005; 최나야 외, 2002)과 사회적 대인관계 특성(윤성지, 2001; 현은민 외, 2005; 유안진 외, 2001)에 대한 조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최근에는 사회문제로 인하여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떨어진 시설청소년의 가족과 관련된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강복정, 2002; 신혜령, 2001; 이미혜, 2002; 정선욱, 2002).

많은 선행연구에서 시설청소년의 퇴소 전, 자립을 위한 요소로서 직업(진로 및 취업지도 교육), 개인(심성수련 및 자아성장 훈련), 가족(가족기능 강화, 가족관계 향상, 성교육 및 결혼준비, 부부 및 부모교육, 의사소통) 등의 교육을 지적하였다(박은선, 2005; 신혜령, 2001; 강복정, 2002; 유안진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시설청소년 및 퇴소자의 요구 조사(배은숙, 강기정, 2006)와 국내·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여러 요소 중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요소만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가족체험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이론과 심리치료 외에 시청각 자료, 동물 돌보기, 꽃밭 만들기, 가족요리체험, 자원봉사활동, 가족테마

여행 등의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역할, 관리자역할, 발달자극역할을 체험하도록 하였다. 이는 동물치료나 원예활동, 가족자원봉사활동 등이 분노조절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hanselman, 2002; 광경화, 1999, 손병구, 1999)와, 부모모델이 없는 시설청소년들이 가족요리체험활동²⁾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과의 상호작용능력 등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김계자, 1983; 김혜실, 1984) 및 시설청소년의 교육요구(배은숙, 강기정, 2006)를 참고하여 본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들에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인 가족상을 정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시설청소년의 특성

시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시설환경이 시설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시설청소년은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인적·물적 자원 및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 좌절을 경험하므로 자존감이 낮고, 억압된 분노와 공격성의 수준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Friedlander, 1980; 정선욱, 2002). 부모가 있는 아동들보다 장기간 양육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이 학교생활에서 더 부주의하고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수동적이고 일반 아동들과의

2) 가족요리체험의 효과성은 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시설청소년들이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가족화에서 구성원 대부분이 한 식탁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것과, 프로그램 중 가족체험요리에 대한 가장 큰 만족도와 체험소감을 참고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상호작용도 적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과제수행에 소극적이며 정서적 어려움, 문제행동, 과잉행동, 학습참여도 부진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Vorria, 1998). 또 시설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정체감, 정서적 불안, 충동 조절능력의 부족, 과잉행동, 공격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Whittaker, 1986; Roy, 2000; 이강이, 이순형, 성미영, 2003; 신혜령, 2001). 하지만 시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시설보호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결핍이 있는 시설청소년에게 동료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설보호는 이들에게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다양한 부모상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다양한 행동 특성을 수용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시설의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 통제력과 충동 억제력을 길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료들의 행동으로 자신을 반영해 보며 동기화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성영혜 외, 1997).

시설청소년의 가족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청소년들은 부모의 충분한 역할 속에서 양육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델을 통해 부모역할을 습득하며 성장하게 되는 반면, 시설청소년은 부모분리를 경험한다.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반을 이루는 부모와의 분리경험은 부모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시설청소년은 사회적 위치를 확정하는 좌표의 축을 물리적·정신적으로 가질 수 없고 그 결과 자유롭지만 위치 감각이 없는 자기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들은 부모와의 분리경험을 통해 부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를 부모의 사랑이 떠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상실, 거절, 굴욕, 무기력, 무가치 등의 감정과 함께 버려졌다고 느낀다(장영인, 1995). 특히 시설청

소년의 부모와의 분리경험은, 가정불화나 학대, 가정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시설에 입소하거나 성인들로부터 거부와 정서적 박탈을 경험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에 대하여 공격적이고 난폭한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노혜련, 장정순, 1998).

애착이론에 의하면 인격형성 과정에서 모성적 양육의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설병증상의 원인이 유전이나 결손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박탈에 있다고 보았다(이태수, 함철호, 이용교, 1997). 원가족 분리경험, 특히 모성분리가 시설보호청소년이 보이는 정서적·행동적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였다(정선욱, 2002). 최근 들어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도 시설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입소 당시부터 부모와의 협력 체계를 형성, 소질과 능력에 따라 상담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심리·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 청소년의 입소배경에 따른 상담과 치료, 생애과정 관점에서 장기적, 지속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2. 시설청소년의 가족상 및 부모역할

시설청소년의 가족상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이나 학대와 같은 이유로 가족이 해체되고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더 큰 정신적 충격이나 상실감을 경험하며, 원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원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시설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인 면을 닮을까 봐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리움과 미움이라는 양가적(兩價的) 감정을 가지고 있다(강복정, 2001).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녀에게 부모의 이미지는 개인의 자아상을 갖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되며, 개인의 자아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설청소년의 원가족 경험과 인식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물론, 원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가족상 및 부모상을 정립하고, 퇴소 후 건강한 미래 가족을 형성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가족상 및 부모상을 정립할 수 있는 심리치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시설청소년들은 원가족과의 분리경험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원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퇴소 후 사회생활, 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시 불신을 갖게 되며, 가족이 없는 관계로 결혼식 및 결혼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기존립의 기반과 기회를 상실한 시설청소년은 미래의 원만한 가정형성을 위해서도 자기존재와 원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김영희, 2001; 천현주, 2002).

이에 시설청소년의 긍정적인 가족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역할(Parenting)의 목적은 자녀의 발달과정 동안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이다. Hauser는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태도가 자기 지각의 척도가 되어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Hauser, S. T. & Best, K. M., 1997). 또 부모역할은 가정의 분위기,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특성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노호은, 박경자, 2001).

그러나 시설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모델을 학습하지 못한 채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한 시설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양육 및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상적

인 애착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므로 또래관계 형성 및 대인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가족모델 부재로 가족에 대한 순기능과 가족원간의 역할 등에 거의 무지한 상태로 결혼에 대해서 두려움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배은숙 외, 2006). 또한 시설청소년들은 시설에서 또래끼리 생활하므로 건강한 부모역할을 학습하지 못하여 미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정파탄으로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주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선욱, 2002;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 2003).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부모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내용에 대한 명료한 개념화가 필요하며, 이는 청년기 이전에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다른 시기보다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가족을 통한 가족 본연의 가치와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에게 미래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준비와 가정에 대한 책임있는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정선희 외, 2006).

시설청소년들의 원부모와의 분리경험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가족관은 장차 이들의 가정형성과 부모역할정립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별거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가정에서 성장하거나, 시설에서 자란 여성이 일반여성보다 결혼의 부적응도가 높고, 부모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Ricks (2003)의 보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부모일수록 자녀

에게 편안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도 지지적이지 못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신체적인 처벌을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조흥식 외, 2006).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환경 속에서의 가족 역할모델 제시는 이들의 이상적 가족상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정립하는 데 꼭 필요한 학습이다.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

예비부모교육이란 부모역할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10대 미혼부모나 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미혼의 청년, 결혼 전이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즉, 예비부모교육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부모역할 준비에서부터 노년기의 부모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모 대상에 적합한 차별적인 교육을 말한다.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기 교육프로그램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이혼, 별거와 같은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Bartz(1980)는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부모역할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서구사회에서 증가하는 십대의 미혼 청소년들의 임신에 수반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예비부모교육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미래의 부모됨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모역할의 긴장을 완화시켜 부모로서 균형 잡힌 전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이들이 장차 부모역할을 수행할 대상으로서 민주적인 가족이념과 그 실천방안을 교육받음으로써 가족에 대한 애정과 통찰을 갖게 하고, 가족의 제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Monte,1983).

미국에서의 청소년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예방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임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외의 청소년을 위한 자원 봉사단체에서 행하는 것 두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다(배은숙, 2006). 외국의 중·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의 예비부모교육은 청소년의 혼전임신을 방지하고,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이재연 외, 1998). 외국의 중·고등학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비부모교육 및 프로그램은 중·고교 청소년들의 혼전임신 방지를 위한 Family Life Education (1980)*, 임신한 10대부모들의 부모역할 기술의 증진과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Prevention Initiative Program (1995)*, 미래 부모가 될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생활기술의 습득과 초기 양육방법, 부모역할학습,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는 Preparing Future Parents And Early Educators In Oklahoma (2004)* 등이 대표적이고, 그밖에 Living For Young Family Through Education(1982~현재)**, Tender Loving Care Teen Parenting Program (1989~현재)**, Teen Parenting & Child Care Program(1985~현재)**, Teen Net(1992~현재)**, Alternatives For Parenting Teens Program (2002~현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지역사회에서 초기에 실시된 청소년의 예비

3) 위의 프로그램 중 *는 나은경(1993), 신혜영(1996), 조희숙(2004), 김정미(2004년) 논문을 참조로 제공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예비부모교육 및 프로그램들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폭력이나 마약, 10대 미혼부모 등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성격이 변화되어갔다. 지역 사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AVE (Standing Against Violence Everywhere)*는 주로 13~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의 필요성과 부모역할 훈련 및 폭력과 마약에 대한 거절을 교육한다. 교육을 마친 청소년은 다시 “또래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Healthy Start to Head Start(1992)*는 10대의 임신 예방과 10대부모가 학업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10쌍 부모 중 80%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였으며, 11%만이 다시 임신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Plain Talk Implementation(2002)*는 지역사회 의 성인, 부모, 지도자들에게 청소년의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간접적 예비부모교육이다(황완규, 1994). 그밖에 Teen Outreach Program(2000)**, Teen Pregnancy Prevention (2005)**, Teen Services(2006)*** 등을 통해 10대의 임신과 학업 중도포기 예방, 응급 피임법, 출산, 절제, 금욕에 대한 상담 교육, 안전한 성관계, 유용한 연계 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미국의 경우, 성 개방 풍조에 따른 미혼모 증가로 건전한 이성교제 교육, 임신예방프로그램 등이 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부모-자녀 의사소통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

어야 하는 예비부모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과는 상이한 면이 있다.

한편, 한국은 외국과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 다르므로 다른 각도에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취업 증대 및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예비부모교육의 대상과 연령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김정희, 1999).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실시한 예비부모교육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순희(1986)는 고등학생의 부모관 및 자녀관을 연구한 결과에서, 남녀 차이가 있었으며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예비부모교육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사정하고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을 위한 부모역할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제경숙, 1990). 고등학생들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나은경(1993)의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주로 부모기에 대한 내용, 바람직한 자녀교육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신혜영(1996)은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가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즉, 철학적 요구, 사회적 요구, 심리적 요구에 근거하여 청년의 자아인식, 성교육, 임신과 출산, 가족관계, 영유아 발달 5개 주제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http://www.ed.gov/pubs/compendium/ch1e.html> ;

** <http://www.arlington.k12.va.us/schools/teenageparentingprograms/#>

4) ** <http://www.advocatesforyouth.org/teenpregnancy.htm>

*** <http://www.ppmw.org> : planned parenthood of metropolitan washington d.c :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전선영(2001)은 대학생들의 요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아동관, 발달이론, 의사소통, 맞벌이 가정의 주제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김정미(2004)의 예비부모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예비부모의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과 요구가 프로그램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내용, 자녀의 발달과 부모역할에 대한 내용, 부모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고 부모됨의 동기, 가족 내 의사소통, 바람직한 아동관 및 양육태도, 현대사회에서의 부모역할, 자기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내용은 적게 다루어졌다(배은숙, 2006). 이병래(2003)는 대학생들의 교양강좌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수업에 적용한 결과, 이들의 자녀 양육태도와 아동교육관,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예비부모교육의 내용으로는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아동의 이해 및 양육방법과 현대가족에 대한 가족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모교육은 8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은 현재 미흡하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의 발달적 요구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준거가 없이 실시되고 있다.

III.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내용

1. 프로그램 개발 과정

2004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시설청소

년 12명과 퇴소자 11명, 총 23명으로 선정하여 시설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알아보았다. 시설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2006년 2월에 4단계 12회기로 구성하고,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전문가들의 자문과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프로그램은 OO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2007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본 연구자는 시설청소년들과 퇴소자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파악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한편, 시설청소년의 부모역할 및 가족상 정립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근거는 시설청소년들의 가정형성 및 부모역할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낮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가족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Amato(199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은 부부 및 가족행복과 자주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정 내에서 부부관계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Satir(2000)는 자아존중감이 결혼과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개인의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논문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성공적인 결혼관계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모의회, 2002). 시설청소년들의 가족과의 유대상실과 시설입소에 대한 모호함은 가족연계와 가족충성심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들은 부모와의 분리를 부모의 사랑이 떠난 것으로 해석한다.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설청소년들은 부모의 부정적인 면을 닮을까봐 이성교제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불신을 갖게 된다. 그뿐 아니라, 가족이 없는 이유로 결혼 및 가정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정선옥, 2002). 특히 부정한 행위나 가출로 인해 이혼한 부모를 둔 시설청소년들은 자기도 자기 자식을 시설에 보내는 악순

환이 되풀이되는 운명이 될까봐, 부모의 부정적인 부모상 때문에 결혼과 자식을 낳는 것을 두려워한다. 원부모로부터 거부와 모성박탈 및 학대경험으로 형성된 시설청소년들의 부정적인 가족상은, 장차 결혼 후에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런 장애요인들은 사회생활에서 고립되고 가족유대가 약화되기도 한다(천현주,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청소년이 갖는 가족생활 설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가족 배경 및 시설환경의 결핍으로 집약될 수 있다. 시설청소년들은 특수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많은 심리적 문제와 부정적인 부모상실경험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시설청소년의 부정적인 부모인식은 미래 가정형성 및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특히 성장과정에서 원만한 부모역할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시설청소년들은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정적인 가족상을 가지고 있는 시설청소년들에게 가족 간에 신뢰와 애정이 있으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가정형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부모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중 공통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참고하여, 시설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 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주제 영역은 크게 ‘나의 이

〈표 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단계	회기	제목	내용	시간
1단계: 나의 이해와 성장단계	1	Orientation과 친밀감 형성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식 이해 별칭, 게임 등으로 라포 형성	■ 160분
	2	자기탐색과 아름다운 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인식 자아개념 및 자신감을 높이는 활동	■ 140분
	3	청소년의‘성’ 이해!	현재 십대의 성문제를 재인식 이성교제, 배우자선택 가치관 습득	■ 160분
2단계: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 단계	4	나에겐 이런 화가 있어!	분노표출을 위한 종이찢기 활동	■ 100분
	5	원가족 용서와 갈등해결!	놀이와 역할극, 가족영화(요셉) 관람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및 갈등 해결	■ 120분
	6	‘행복찾기’ 생명돌봄과 사랑체험!	동·식물을 보살피기 생명의 소중함, 사랑과 인내 체험	■ 130분
3단계: 부모역할 정립단계	7	부모기에 대한 이해!	성경 속의 다양한 가정탐색 영상, 가족화를 통한 부모역할 정립	■ 130분
	8	행복한 미래와 내가 기대하는 부모!	가족영화 관람 및 가족구성원 역할 학습 미래 자신이 기대하는 부모역할 설정	■ 140분
	9	아름다운 대화와 행복한 가족커뮤니케이션!	가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효과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및 기술 습득	■ 150분
	10	‘행복찾기’ 가족요리체험!	조리과정을 통한 가상가족 형성 및 기능적인 부모역할 체험	■ 140분
	11	나도 할 수 있어! Vision 새 출발!	가족 간의 체험활동을 통한 미래의 부모역할 정립 및 비전 확립	■ 150분
4단계: 부모역할체험 단계	12	‘행복찾기’ 가족테마여행 및 체험!	가족테마여행으로 학습한 부모역할을 체험 및 가족 간의 상호관계 향상	■ 1박2일

해와 성장', '원부모에 대한 이해와 수용', '부모역할 정립 및 부모역할 체험' 단계로 나누고 각 회기에 적합한 주제만을 선택하여 본 프로그램에 참고하였다.⁵⁾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은 4단계 12회기로 구성하고, 시설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위해서 강의 외에 역할극, 시청각 자료, 게임,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였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그림 1> 시설청소년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모형

실험집단	O ₁	X	O ₂
비교집단	O ₃		O ₄

X : 처치변인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O₁, O₃ : 사전검사 / O₂, O₄ : 사후검사

2. 연구문제

- 1)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시설청소년의 이상적 가족상 정립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가?
- 3) 구성원의 집단변화과정은 어떠한가?

3. 연구대상

연구대상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인원 수	평균 연령	성별		평균 입소 연령	평균 입소 기간	입소당시 가족관계	
			남	여			부모 있음	부모 없음
실험집단	9	17.3	4	5	7.8	9.4	6	3
비교집단	9	17.5	5	4	8.0	9.4	7	2

4.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가족체계 유형에 대한 질문지(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III) 중 미래의 이상적 가족체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자아존중감이 0.76, 이상적가족상이 0.63이었다. 이에 대한 타당도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양적·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양적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 동질성검사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동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과 이상적 가족상의 사전·사후비교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는 2007년 4월 22일,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7월 30일에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후·사전차이의 차이검증은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변인별 점수는 평균 산출을 하였다.

5) 각 단계별 프로그램 '구성근거 및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자의 박사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

<표 3>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증결과이다. 이상적 가족상에서는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에서는 두 집단의 동질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사후의 프로그램 효과검증은 공변량 분석을 통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표 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비교

변인(사전)	구분	N	M	SD	t
자아존중감	실험	9	2.69	.49	-3.60**
	비교	9	3.38	.31	
이상적 가족상	실험	9	3.24	.33	-1.18
	비교	9	3.39	.22	

** $p < .01$

2.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프로그램 효과 사후비교

자아존중감의 두 집단 간의 사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p < .001$)가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사후 공변량 분석

변인	구분	N	M	SD	F
자아존중감	실험	9	3.76	.29	17.4***
	비교	9	3.21	.53	

공변수와 집단의 주효과 : 공변수-사전검사, 집단-실험집단과 비교집단

*** $p < .001$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비교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2.69점, 사후 3.76점으로 실험집단은 사전보다 사후에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비교

집단	구분	N	M	SD	paired-t
실험집단	사전	9	2.69	.49	-7.54***
	사후	9	3.76	.29	
비교집단	사전	9	3.38	.31	1.48
	사후	9	3.21	.53	

*** $p < .001$

이와 같은 결과를 참고할 때 시설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

3.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의 이상적 가족상에 미치는 효과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프로그램 효과 사후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이 평균 3.79점, 비교집단이 3.42점으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이상적 가족상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 < .05$)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사후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참고로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01$)가 나타났다.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이상적 가족상의 사후 공변량 분석

변인	구분	N	M	SD	t	F
이상적가족상	실험	9	3.79	.34	2.56*	25.8***
	비교	9	3.42	.28		

공변수와 집단의 주효과 : 공변수-사전검사, 집단-실험집단과 비교집단

* $p < .05$, *** $p < .001$

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상적 가족상 사전·사후 비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두 집단의 이상적 가족상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상적 가족상에 있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3.24점, 사후 3.79점으로 나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7〉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상적 가족상 사전·사후 비교

집단	구분	N	M	SD	paired-t
실험집단	사전	9	3.24	.33	-7.33***
	사후	9	3.79	.34	
비교집단	사전	9	3.39	.22	-.39
	사후	9	3.42	.28	

*** $p < .001$

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집단 변화과정

1) 프로그램 초기단계: 의욕 없는 태도와 거부감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는 팀원들이 의욕 없는 태도와 거부감을 보였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하기 싫었지만...”(A,B,C,G) “답답했다. 무엇때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답답했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다.”(I) 라포를 형성하는 데 이미 팀원들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생소한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고, 귀찮은 태도로 인해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이해시키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2) 프로그램 중기단계: 감정 표현과 수용의 어려움

프로그램 중기단계에서는 감정표현을 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A,G) 원가족 이해와 수용단계에서는 원부모에 대한 분노와 원망하는 감정이 남아있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가졌다.” 절 버렸다는 생각에 미웠어요...”(D) “나를 이곳으로 보내서 날마다 부모님을 원망했어요.”(F) “부모님께 화가 나요. 그냥...”(G,H) “그냥 무조건 원망만 되었다.....날 힘들게 만든, 혼자 남게 내버려 버린 부모가....용서가 안돼요”(I) 그러나 가족역할을 체험해보는 다양한 활동에 흥미를 느꼈으며, 가족영화를 통해 건강한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미래 자신이 기대하는 부모역할을 설정해보는 과정에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였다.

3) 프로그램 후기단계: 자신감과 이상적 가족상에 대한 기대

프로그램 후기단계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신의 비전에 대한 기대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표정도 초기보다 많이 밝아졌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B) 특히 가족체험활동은 비록 가상 가족이었지만 팀원들이 친 가족 같은 가족애와 행복감을 느꼈다. “조금이나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D)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다.”(F) “가족역할이 정말 행복했었다.”(H) “가족들의 유대감형성에 좋은 것 같다. 가족들끼리 역할을 분담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할 수 있어

정을 느꼈다.”(I)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만족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 이는 팀원들이 장차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가족상을 정립하고, 그동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독신을 주장했던 I는 자신감을 얻어 “건강하고 멋진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이제는 가족이란 이미지가 설렌다.”고 표현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심해 연락을 끊고 살았던 I의 경우, ‘원가족 용서와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많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종결 무렵 밝게 변화된 모습에서도 상처가 치유됨을 느낄 수 있었다. “통곡을 하며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해봤던 ‘나에게 상처주었던 사람역할 해보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가슴속에 담아뒀던 말이 툭 터지면서 느껴지는 시원함과 편안함...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I)

4) 프로그램 종결단계: 이상적 가족상에 대한 비전과 도전의식

프로그램 종결단계로 1박 2일 가족테마여행을 통해 팀원들에게 부모역할체험 기회를 갖게 하였다. 가족테마여행 때의 가족체험 활동경험은 자연과 더불어 가상가족끼리 함께 활동함으로써 더 친밀감과 만족감을 주었다. “엄마, 아빠, 딸, 아들.....정말 행복했다.”(D) “정말 가족인 것 같았고 내가 정말로 딸인 것 같았다.”(E) “막내를 하니 진짜 가족 같았다.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F) 또한 팀원들이 장차 가정을 형성, 부모역할을 정립하고 비전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는 어떤 일이건 무슨 일이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I) 또한 원부모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음을 편지에서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은 나쁜 감정이 사라졌어요...절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A,B, C,D) “평생 용서못한다고 이걸고 그랬는데...누군가를 원망하던 내가 모든 걸 용서하고 감싸안을 수 있게 된 사실에...기뻐다.”(I)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아쉬운 표정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기대하였다. “다음에 뭘 할지 너무 궁금하다.”(D)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E)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고...”(F) “이 프로그램은 빠져서도 안 되고 평소에도 자주 가져야 될 프로그램이다”(C,I) 특히 가족테마여행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부족했던 시설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적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예비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원부모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이상적인 가족상 정립에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5.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종결평가에서 프로그램 만족도, 내용일치도, 진행자, 집단구성원에 대한 만족도 등이 높았다. 특히 '가족요리체험'과 '원가족 용서하기' 프로그램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설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평가에서도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원가족 이해와 수용, 이상적 가족상 등에 변화를 보였다. 실험집단의 주관적 평가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아존중감 향상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 같다.”(B)

“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나를 사랑하게 되었다.”(C)

“이 프로그램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많아졌다”(G)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에서도 가끔 발표도 하게 되었다.”(F)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이제는 어떤 일이건 무슨 일이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I)

2) 원가족 이해와 수용

“마음에 있는 화가 풀어지고..그리고 행동도 변했어요. 전 항상 엄마, 아빠를 그림으로 그려요”(C)

“가슴깊이 쌓여있는 화가 없어져...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감사하고 있어요”(E, F)

“얼굴도 모르는 엄마, 아빠...그래도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저 때문에 우셨을 것 같아요. 용서할게요.”(G)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은 나쁜 감정이 사라졌어요...절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A,B,D)

“어쩔 때는 부모님께 화가 나지만...감사할 때가 더 많아요.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지금은 원망하지도 않아요.”(H)

“평생 용서못한다고 이갈고 그랬는데...원망하는 마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아빨 다시 만나면 평평 울고 싶어요.”(I)

3) 이상적 가족상 정립

“나는 결혼해서...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절대 부부싸움을 안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A)

“미래 가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B)

“서로 협동이 잘 되고 화목한 가정이 된 것 같아서 좋았다...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예의있게 가르칠 것이다.”(D)

“엄마, 딸, 아들, 아빠역할을 해서 재미있었

다...오랜만에 생긴 가족이어서 보람을 느꼈다. 정말 가족인 것 같았다...나는 대가족을 이루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해주고 엄마, 아빠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부모가 될 것이다.”(E)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화목한 가족이 좋았다...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힘든 집안일도 같이 협동하겠다”(F)

“나는 자식에게 자상하고 때론 잘못을 잘 지적해주고...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겠다.”(H)

“예쁘고 멋지고 건강한 가족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기뻐다. 이제는 가족이란 이미지가 설렌다.”(I)

이와 같이 위의 주관적 평가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원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 이상적 가족상 정립 등에 변화를 보여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E), “이 프로그램은 빠져서도 안 되고 평소에도 자주 가져야 될 프로그램이다.”(I)라고 하였으며, 차후에 또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주기를 구성원 대부분이 기대하고 있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설청소년의 미래 가정형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시설청소년의 예비부모교육 실천분야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설청소년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문제로는, 시설청소년의 자

아존중감과 이상적 가족상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았다. 2004년 시설청소년의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를 알아보고, 선행연구를 구성근거로 시설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2006년 2월에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4단계('나의 이해와 성장', '원부모에 대한 이해와 수용', '부모역할 정립 및 부모역할 체험'), 12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되었으며, 실험집단 9명과 통제집단 9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로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고, 집단 및 개별 변화과정 분석과 프로그램 총괄평가, 주관적 평가를 연구 자료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기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고 한 김정미(200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시설청소년에게 자기이해를 통하여 자아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사회적응과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 기초가 됨을 시사하였던, 강복정(2002)의 논문과, 집단상담 후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한 여러 연구(홍경자, 2000; 추영미, 2005; 공영자, 2003)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구성원의 동·식물 돌보기, 자원봉사 등의 활동들은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시설청소년의 이상적 가족상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이상적인 가족상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교육관 변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이병래, 2003; 조희숙,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부모되기 지식 습득 및 태도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 (신혜영, 1996; 김정미, 2004; 전선영, 2001) 등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가족체험활동 즉, 가족요리체험과 가상가족형성, 가족영화 등은 이들의 이상적 가족상 정립을 위해 효과가 있었다.

셋째, 실험집단의 변화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는 의욕없는 태도와 거부감을 보이다가, 프로그램 중기단계에서 감정표현과 수용의 어려움을 보였으며, 후기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아존중감 향상과 이상적 가족상에 대한 기대 및 비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험집단의 종결 평가 및 주관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자아존중감 향상과 이상적 가족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 Opening message의 내용에 다양한 가족사례를 각 회기에 개입시킨 것과, 가족체험활동 프로그램을 Long-term으로 실시한 것이 이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상적 가족상을 정립하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배은숙, 2006).

본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양육시설환경과 시설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설만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다양한 가족체험활동을 통해 개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설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써의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째, '동·식물 돌보기'나 '가족자원봉사'와

같은 지속적이고, Long-term으로 실시된 체험 활동프로그램은 생명에 대한 존중심을 심어주며, 양육에 대한 인내심을 키워주고, 돌봄과 섬김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둘째,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시설청소년에게 실시하여 이들에게 올바른 부모관 및 가족관을 심어주는 것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실제적으로 대물림될 수 있는 가족해체 감소에 커다란 기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사례와 시청각 교육 등의 개입이 시설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이상적 가족상 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넷째, 가족문화체험을 자주 접하기가 어려운 시설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가상가족 체험활동’과 가족여행은 교육적·정서적인 면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모델이 없는 이들에게 부모역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과 응집력을 갖게 해주며 미래 부모역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각 시설의 특성 및 시설청소년의 정서와 교육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연령별·단계별로, 그리고 체계적·지속적·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long-term으로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퇴소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시설 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의 지원체제 구축이 시급하고,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시설보호환경의 현실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의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강복정(2001). 시설청소년을 위한 퇴소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을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강복정(2002).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0), 33-48.
- 3) 김기영 외(2004).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좋은인간관계학회지 2(1), 104-123.
- 4) 김승권(2003).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5) 김정미(2004).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적용효과. 유아교육학논집 8(4), 65-85.
- 6) 김정희(1999). 유아를 둔 아버지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51-292.
- 7) 김춘경 외(2004). 시설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지 8(1), 19-35.
- 8) 나은경(1993). 고등학생의 부모기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자녀교육에 관한 태도연구 : 대전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노혜련, 장정순(1998). 육아시설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 65-92.
- 10) 노호은, 박경자(200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2), 55-71.
- 11) 모의희(2002). 자기존중감과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부적응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박은선(2005).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일반주의 실천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배은숙, 강기정(2006). 시설청소년의 가족 인식 및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요구 : 시설청소년과 퇴소자를 대상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2), 107-125.
- 14) 성영혜, 김변진(1997). 아동복지, 서울 : 동문사.
- 15) 신혜령(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신혜영(199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동아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유안진 외(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57, 135-149.
- 18) 유안진, 한유진, 김진경(2003). 시설보호 아동의 또래 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역량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4(2), 109-121.
- 19)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20) 이강이, 이순형, 성미영(2003). 시설보호 유아를 위한 사회적 유능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1(5), 41-58.
- 21) 이미혜(2002). 시설보호형태에 따른 보호 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이병래(200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3.
- 23) 이재연, 김경희(1988). 남녀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7), 103-115.
- 24) 이태수, 함철호, 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5, 169-206.
- 25) 장영인 역. 노사와마자꼬 저(1995). 아동양육의 위기와 사회적 보호. 서울 : 인간과 복지.
- 26) 정선욱(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정선희, 김윤선, 손주영, 이연숙, 이윤정 (2006). 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1), 127-147.
- 28) 조홍식 외(2006). 가족복지학. 서울 : 학지사.
- 29) 조희숙(2004). 예비부모교육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천현주(2002).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분노대처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최나야 외(2002).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61-174.
- 32) 한국가족치료연구회 역, Satir. V 저(2000). 사티어모델-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 서울 :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33) 현은민 외(2005).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9-29.
- 34) 황완규(1994). 결혼적령기 직업여성의 유아양육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광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 A meta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36) Bartz, K. W.(1980). Parenting education for you. In M. J. Fine(E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37) Friedlander, W. A.(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New Jersey :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38) Hauser, S. T. & Best, K. M.(1997). Predicting young adult competencies : Adolescent era parent and individual influenc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1), 90-104.
- 39) Indira A. R. Lakshmanan(1995). Teenagers saying no way, baby citywide program help to reduce youth pregnancy, Boston Globe : Jul 23.
- 40) Monte, E. P.(1983). The Phenomenology of Virtual Parenthood : A Qualitative Study of Significant Experiential Themes When Imaging Oneself As a Possible Parent. Ph. D. University of Waterloo.
- 41) Reese, L., Balzano, S., Gallimore, R. & Goldenberg, C.(1995). The Concept of Educacion : Latino Family Values and American Schoo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3(1), 57-64.
- 42) Ricks, F. & Bellefeuille, G.(2003). Knowing : The Critical Error of Ethics in Family Work. Child & youth services 25(1-2), 117-130.
- 43) Roy, P., Rutter, M. & Pickles, A.(2000). Institutional Care :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r Pattern of Rearing?.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2), 139-149.
- 44) Stolz, H. E., Barber, B. K., Olsen, J. A., Erickson, L. D., Bradford, K. P., Maughan, S. L. & Ward, D.(2004). Family and School Socialization and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 A Cross-National Dominance Analysis of Achievement Predictors, Marriage & Family Review 36, 7-34.
- 45) Vorria, P., Rutter, M., Pickels, A. Wolkind, S. & Hobsbaum, A.(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 Families : II. Possible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2), 225-236.
- 46) Whittaker, J. K., Schinke, S. P. & Gilchrist, L. D.(1986). The ecological paradigm in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 :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483-503.

- 접수일 : 2008년 4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7일